

4 명의 퇴직로인 줄줄이 철창행, 리유 알아봤더니...



최근 호북성 강한유전공안국 형사 수사지대는 범죄 소득을 숨기고 은닉한 혐의가 있는 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용의자 5명을 나포했다.

하지만 38세 남자 녀씨를 제외하 나머지 4명 용의자가 모두 60대의 퇴직로인이라는 사실에 경찰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조사 결과, 5명의 범죄용의자는 '사례비'를 벌기 위해 주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2~3장의 은행카드를 사기범죄집단에 빌려주었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변연히 알면서도 범죄집단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이체, 인출 등 일련의 조작을 하여 범죄집단의 돈세탁 '범죄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10여건의 범죄사실에 연루되었고 사건 관련 금액은 90여만원에 달하였다. 현재 5명의 용의자는 전부 법에 따라 형사구류됐다.

인수된 '2가지 카드'는 무엇에 사용되었는가?

불법매매에 참여했다면 어떤 결과를 부담해야 하는가?

일단 범죄집단에 빌려준 은행카드와 휴대전화 카드는 사기, 돈세탁, 탈세, 주식계좌 허위 개설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조사를 거쳐 카드 주인의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데 개인신용이 손상될뿐더러 법적 책임까지 추궁받게 된다.

◎ 신용 징계

인민은행은 관련 정보를 금융신용기초데이터베이스에 이송하는데 법률법규 위반 행위가 개인신용 조회보고에 기록되면 일정한 시간내에 관련자의 대출과 신용카드 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업무 제한

5년간 관련 단위와 개인의 은행계

좌의 비창구 업무와 계좌 지불의 모든 업무를 중지한다. 즉 관련 단위와 개인은 5년 동안 은행카드를 사용하여 ATM 기에서 입·출금할 수 없고 인터넷은행이나 모바일은행을 사용하여 이체할 수도 없으며 카드로 쇼핑할 수 없고 쇼핑물을 통해 패스지불을 할 수 없으며 알리페이 계좌를 등록할 수 없고 알리페이나 위챗을 사용하여 홍보를 보내거나 코드를 스캔하여 지불할 수 없다.

◎ 계좌 엄단

은행과 지불기구는 5년내에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새로 계좌를 개설해 주지 못한다. 징계 기간이 만료된 후 계좌 개설을 신청하더라도 은행과 지불기구는 심사 강도를 높인다.

'2가지 카드' 관련 범죄가 직면한 법률 처벌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312조에 근거하여 범죄 소득 및 그로 인한 수익임을 변연히 알면서도 은닉, 이전, 수매, 대리판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숨기거나 은폐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 형에 처하며 병과 혹은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87조 2에 근거하여 타인이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죄에 인터넷 접속,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저장, 통신 전송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광고 보급, 지불 결산 등 도움을 제공하였을 경우, 정상이 엄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구류형에 처하고 병과 혹은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반전신인터넷사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으로 전화카드, 사물인터넷카드(物联网卡), 전신선로, 문자메시지포트, 은행계좌, 지불계좌, 인터넷계좌 등을 매매, 임대, 대여해서는 안되며 실명 검사 도움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대리관계를 허구하여 상술한 카드, 계좌, 계좌번호 등을 개설해서는 안되는바 상술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한다.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 권장 : '도우미'가 '공범자'로 되지 말아야

경찰은 공짜가 생겼을 때 '합법적인가?', '정규적인가?', '믿을만한가?' 등 세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볼 것을 광범한 대중에게 권장했다. 개인의 은행카드, 휴대전화 카드와 각종 지불계좌를 임대, 대여, 매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에 속한다. 자기의 계좌를 범죄도구로 만들지 말고 '도우미'가 '공범자'로 되지 말아야 한다!

/ 법치일보

한국 출입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최근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긴급 통고를 발표하여 최근 출입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아래 두가지 사례를 주의하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1. 사기군들은 출입국심사과(02-2110-40390), 국제 형사과(02-2110-3294),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2110-3000) 등 법무부 소속 부서의 전화번호를 위조하여 부서 담당자를 사칭하고 당사자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서 검찰청에 출두할 것을 요구한다.

2. 사기군들은 출입국 부문 직원을 사칭하여 당사자가 동남아시아 특정 국가에 입국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해당 국가의 사기와 살인사건이 빈번하다는 리유로 당사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미니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요구한다.

법무부는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전화(02-2110-3000)는 수신용으로만 사용되고 호출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당부했다. 만약 상술한 부서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전화를 받고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면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사기를 주의하기 바란다

도 전했다.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중국 공민들에게 상술한 사기수법에 주의하고 예방을 강화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한국 경찰신고전화 : 112
중국 외교부 글로벌 령사 보호 및 응급서비스 전화 : 0086-10-12308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령사 보호 및 협조 전화 : 02-755-0572

령사 보호 및 협조 메일 : seoul_lb@csm.mfa.gov.cn

부산 주재 총령사관 령사 보호 및 협조 전화 : 010-8519-8748

광주 주재 총령사관 령사 보호 및 협조 전화 : 062-361-8880

제주 주재 총령사관 령사 보호 및 협조 전화 : 064-722-8802

/ 인민넷 - 조문판



최근 길림시 창흥구인민법원 구청인민법정의 법관과 간부경찰들은 화파장진 봉철 농자농기계 전시판매 장터를 찾아 '사법으로 춘경 수호' 법률지식 보급전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봉갈이생산에 정확한 법률 봉사를 제공하고 농업생산의 질서있는 추진을 전적으로 보장했다.

/ 길림일보

쇼핑 시 실제가격의 10 배로 잘못 지불, 돌려받을수 있을까?

전자지불 방식이 보급됨에 따라 구매한 물건값을 휴대폰을 통해 쉽게 지불할 수 있는 반면 '일시적인 조작실수'로 금액을 필요 이상으로 잘못 지불하게 되면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현실생활에서 돈을 잘못 지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돈화시법원은 이런 사건을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조정해주었다.

[사건 회고]

작년 11월의 어느 날, 장씨 녀성은 모 슈퍼마켓에서 쇼핑했다. 그런데 상품의 총가격 600원을 수금 코드로 스캔하여 지불할 때 조작 실수로 뒤에 0을 하나 더 입력하다 보니 그만 6,000원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잘못 지불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은행카드의 소비내역서를 살펴보고서 더 지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슈퍼마켓을 찾아가 더 지불한 5,400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슈퍼마켓 경리는 3개월전 수금을 책임졌던 수금원이 이미 사직했고 자신은 부임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장부를 대조하기 어렵다는 리유를 대며 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후 장씨는 여러차례 슈퍼마켓과 소통했지만 번마다 슈퍼마켓측의 거절을 당했다. 장씨는 하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 더 지불한 금액을 반환해줄 것을 슈퍼마켓에 요구했다.

[법원 조정]

사건을 접수한 담당법관은 쌍방 당사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사건의 경과와 쌍방의 요구를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법원은 조정 과정에서 먼저 장씨에게 관련 법률 규정을 설명하면서 비록 지불 착오는 장씨의 조작 실수로 인한 것이지만 슈퍼마켓은 수취인으로서 더 지불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주었다. 이와 동시에 법원은 비록 수금원이 이미 리직했지만 슈퍼마켓은 경영주체로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슈퍼마켓측에 강조했다. 법원은 슈퍼마켓은 장씨와 협조해 장부 확인을 진행하고 더 지불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인쇄심 있고 세밀한 법률 해석을 거쳐 슈퍼마켓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장씨가 더 지불한 5,400원을 반환하는 데 동의했다.

슈퍼마켓측이 조정 현장에서 바로 이 돈을 반환하자 장씨측도 조정 결과에 만족감을 표하고 법원에 소송 취소 신청을 제출했다.

[법관 권장]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많이 이체하거나 거스름돈을 많이 찾아주거나 전화비를 다른 번호에 잘못 충전하거나 계좌에 잘못 이체하는 등으로 얻은 리득은 모두 부당리득에 속한다.

현재 모바일 지불이 날로 일상화되고 있다.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온라인 거래는 비록 편리하고 빠를 우점이 있지만 일상 소비에서 지불 금액을 자세히 대조해야 하는바 조작 실수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하지 말아야 하며 잘못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상가들은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수금 절차를 규범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 유경봉기자

훈춘 공안 28 년전 살인사건 해명

—‘1997.2.11’ 미제 살인사건 전문수사팀 개선 환영식 거행



전문수사팀이 미제사건을 해명하고 개선하여 돌아왔다.

최근, 훈춘시공안국에서는 성대한 환영식을 열고 '1997.2.11' 미제(未解) 살인사건 전문수사팀의 개선을 환영했다. 훈춘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김훈이 환영식에 참석해 연설했다. 훈춘시인민정부 부시장이며 공안국 국장인 리위 및 공안국당위 성원들 및 공안국 소속 부문 및 기관 경찰 대표 130명이 환영식에 참가했다.

김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 전 시 공안기관은 인민대중들의 안전감과 만족감 제고를 사업 방향으로 대형 사건에 대한 타격, 난제공략, 미제사건의 해결에 지속적으로 힘을 써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훈춘 공안이 다음 단계 사업에서 곤난을 이겨내고 전투에 능하게 기여하는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여 실무적인 행보와 근면한 태도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훈춘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

을 위해 중대한 기여를 하기 바란다.

환영식에서 김훈과 리위가 전문수사팀 경찰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훈춘시공안국 형사수사대 대대장 고근봉이 보고를 했다.

▲ 사건 경과 및 수사 과정

1997년 2월 11일, 정월 초닷새날 길림성 구태 출신인 리씨는 훈춘시 춘화진 모 탄광에서 일하던 중 동료 김씨와 말다툼이 생겼다. 앙심을 품은 리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둔기로 살해했다. 이어 리씨는 원씨와 함께 김씨의 시신을 부근의 한 텃밭에 매장한 후 도주했다. 사건 발생후 훈춘시공안국은 즉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2명의 범죄용의자를 확정했다. 그러나 당시 범죄용의자는 탄광에서 립시로 일했던 상황이고 평소 서로 별명을 불렀던 등 원인으로

정확한 신원 파악을 할 수 없었고 수사는 시종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28년 동안 훈춘시공안국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작업을 끝낼 포기하지 않았다. 선후로 8대 공안국장, 7대 형사수사 대대장이 계속해서 사건을 인수인계했고 전문수사팀 경찰들은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을 이어갔다. 2025년, 훈춘시공안국은 대형·난제·미제 사건 해결을 중점 과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전문수사팀은 전국 각지에 있는, 당시 탄광에서 일했던 모든 종업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효과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전문수사팀은 공안국당위의 통일적인 지휘 아래 실마리를 찾아 난관을 돌파했다. 마지막 하나의 '단서 퍼즐'이 발견됨에 따라 28년 동안 묻혔던 살인사건과 그

배후의 2명 범죄용의자가 마침내 수면 위에 떠올랐다. 3월 18일, 전문수사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천진과 내몽골 두 지역으로 향했다. 3월 20일 21시, 이 두 지역에서 동시에 체포작전을 펼쳐 마침내 범죄용의자 리씨와 원씨를 검거했다.

두 용의자는 이미 훈춘시로 압송되었고 전문수사팀의 집중 심문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규율을 엄명히 한다.'는 총체적 요구를 실천하는 도로에서 훈춘 공안은 법의 검을 높이 들고 장예를 헤치며 정의를 구현했으며 철혈적 책임으로 범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낮과 밤을 이어가면서 균중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 리진기자

/ 사진 훈춘시공안국



범죄용의자가 훈춘 공안에 나포되어 압송되어오고 있다.